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장 김홍(02-509-7226), 연구관 오광해(7227)		

기술표준원, 표준강국 Top 7 진입위해 표준화R&D 확대

– 국제표준개발·기반조성에 225억원 투입(22%↑) –

□ 기술표준원(원장 허 경)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'12년도 국가표준 기술력향상사업 시행계획」을 마련하고 기술표준 연구개발, 국제협력, 인프라조성 등 부문별 추진방향, 투자규모와 세부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하였다.

○ 시행계획에 따르면, 정부는 표준강국 진입을 위해 표준 연구개발, 국제표준 등록, 표준화 기반조성 등 3대 부문에 총 225억원을 올해 지원한다.

- 예년(185억원) 보다 22% 증액된 것으로, 표준화연구개발·국제표준등록지원 부문에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

- 국제표준등록지원 부문에서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반영 활동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조직설립 및 임원수임에 중점 지원

- 표준화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전기차·지능형 선박을 포함한 미래 수송시스템 기술, 그린반도체·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수출전략 디바이스 기술표준, 인쇄전자·바이오-의료·나노IT응용 등 고부가가치 융합 기술표준 등에 중점지원

○ 본 사업의 신규과제 수요조사는 2월6일부터 2월27일까지 실시되며, 기술표준원(www.kats.go.kr)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(www.keit.re.kr)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참여방법과 후속일정 등이 안내된다. 기술표준원에서는 2월7일(화) 16시부터 산·학·연 등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특별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표준강국 Top 7 진입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'5가지 사업운영 메카니즘 개선' 부분이 눈에 띈다.

○ 첫째, 국내표준의 개발보다는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활동 리더십 강화에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.

- 국제표준이 업계의 수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, 실질적 기술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표준 보다 국제표준에 집중할 필요

＊ 본 사업을 통하여 연간 국내표준 50여건 제정, 국제표준 20여건 등록 등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, 국내표준 개발에 치중됨

- 국제표준 제정과정의 최근 트렌드(TC/SC/WG차원에서 공동제안 및 공동작업을 통한 표준 통용성 강화)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기구內 산하 활동조직 신설 및 임원수임 등 국제 리더십 확대를 전략적으로 지원

＊ '11년도 IEC의 경우, 국제표준(안) 제안은 약 70%가 위원회 간사 대표명의로 제안

○ 둘째, 과제수행의 주체를 현행 연구소·협회 중심에서 민간업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.

- 표준의 주 수요고객인 중소기업의 과제수행을 점차 확대하고, 대기업과의 표준연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공모 과제에 민간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Room을 우선 배정

- 기업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국내 업계기술의 국제표준화 반영이 미흡하다는 분석에서 기인된 것이다.

＊ '11년의 경우, 총 121개 수행과제 중에서 4개(3%) 과제만 민간업체가 수행

○ 셋째, 예산사업간 지원방향의 차별화, 세부과제간 중복수행의 방지, 성과도출 지원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-R&D 담당관(표준PD, 예산사업 담당자, 연구과제 담당자)들간의 연계협력을 제도화 하였다.

○ 넷째, 경직되고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유연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.

- 공격적인 목표를 포함하는 과제에 대하여 목표달성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성공수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, 사전점검을 통해 수행기간 연기를 권고하고 목표성과를 유도

- 이 경우, 과제 수행기관은 추가 지원 없이 미흡한 목표를 연기한 기간내 달성한 후 평가

○ 다섯째, 과제수행으로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후속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.

- 성과물이 국제표준(초안)인 경우는 국제등록활동사업으로, 시험기준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시험장비구축사업으로 연계지원 검토를 의무시행

□ 기술표준원은 2015년도 국제표준 강국 Top 7 진입전략으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라는 지표를 정하고, 실천과제의 선정과 수행에 관한 투자효율성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.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.